

# ‘도시역사’에 묻어난 일제 침탈의 실상

《일제 강점기 도시화 과정 연구》 펴낸 손정목 교수

과거의 연구는 우리의 기원을 풀 수 있는 열쇠다. 문명발생의 과정은 곧 창조와 변화의 시간이기도 하다. 최근 《일제 강점기 도시화과정 연구》와 《일제 강점기 도시사회상 연구》(일지사)를 동시에 펴낸 손정목(孫禎睦) 전 서울시립대 교수(68, 서울시 시사편찬위원장)는 이 흥미로운 주제를 일생의 연구과제로 삼아 한국도시역사학을 개척한 선구적 학자다.

## 일제시대 도시역사의 일그러진 모습

손교수는 이미 지난 77년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조선시대 도시사회 연구》를 시작으로 《한국개항기 도시변화과정 연구》(82) 《한국개항기 도시사회경제사 연구》(82) 《한국 현대도시의 발자취》(88) 《일제강점기 도시계획 연구》(90) 《한국지방제도, 자치사 연구 상·하》(92) 등 일련의 저서를 펴낸 바 있다. 이번에 동시 출간한 두 저서는 일제의 농촌침략 결과로 나타난 우리나라 도시역사의 일그러진 모습을 조명함으로써 일제의 가혹한 식민정책의 실상을 날카롭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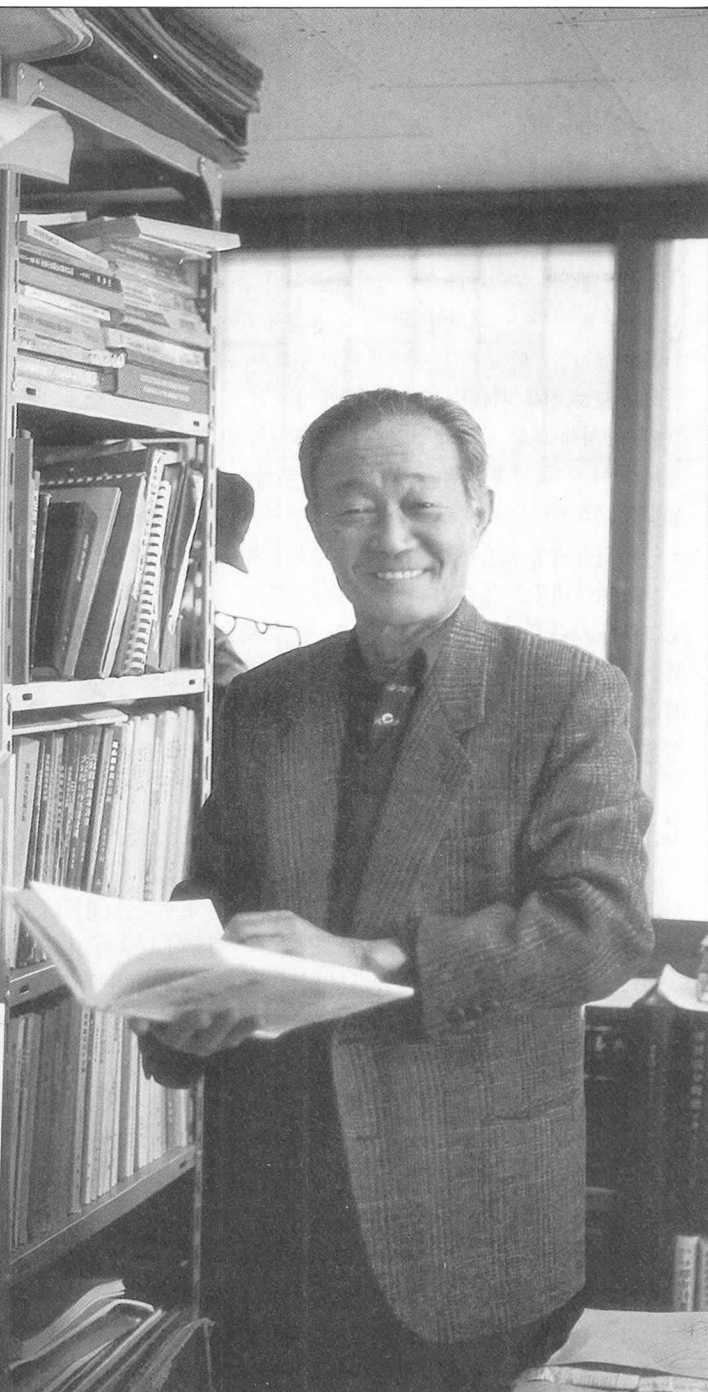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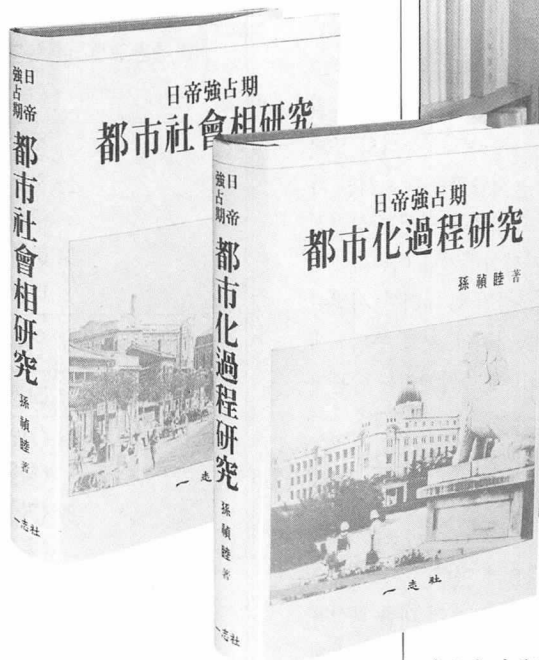
“우리나라 모든 학문이 거의 그렇지만 특히 일제시대사 연구는 아직도 황무지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사안들이 상식적으로 전해지고 상식선에서 이해되고 있을 뿐 깊은 연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학자는 많지만 일제 시책 자체의 연구는 너무 적어 성과도 미미하죠. 이제 자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기라 우직하게나마 이 일에 매달려 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손교수의 두 저서는 일제 강점기의 도시화가 한마디로 “땅도 빼앗기고 재산도 없이 도시로 올라온 우리 민족이 갖은 고생을 겪은 과정”이었음을 냉정하게 분석한다. 1920년 전조선의 총 인구수는 1726만에서 1940년 2433만으로 20년간 약 700만 이상이 증가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이 엄청난 증가 인구의 부양은 비참한 도시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도시화과정 연구》에서 농촌침략의 산물이 곧 우리나라 도시의 역사임을 구체적으로 밝혀나간다. 토지조사와 산미증식 계획으로 극한상황에 있던 농민들은 고향을

등지고 만주 시베리아와 일본, 그리고 경성 부산 평양 대구 등의 도시로 떠났다. 1910년에서 1940년대까지 떠나가고 모여든 과정을 다각도로 분석한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다. 또 도시에 거주하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주거분화 현상, 일본인에 의해 번창했던 어항이 일제말기부터 쇠퇴해가는 과정, 그 밖에 각 지방 도청의 성쇠과정과 화학공업 도시 흥남의 발전과 쇠퇴과정 등을 각종 자료를 통해 선명하게 밝혀낸다.

이 가운데 특히 《회사령과 그 영향》은 일제의 상공업정책이 조선의 정상적인 도시화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낳았는지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조선총독부 관보를 살살이 뒤져 회사령 관계 기사를 모은 결과 일제의 ‘회사령’이 우리 도시에 일본인의 경제력 확대와 한인 경제력의 쇠퇴를 가져왔고, 조선 각 도시의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억제효과로 작용될 수밖에 없었음을 조명한다.



손정목 교수.

“결국 회사령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도시 성장 억제 효과는 토지조사사업과 일인지주의 농촌지배 때문에 농촌을 떠나야 했던 노동력을 도시로 흡수하지 못한 채 만주와 북간도 서간도 일본 각지로 등을 떠밀게 되는 역사의 비극을 연출하게 됩니다.”

《...도시화과정 연구》가 일제침략정책에 의한 비정상적인 도시화와 그로 인한 조선

인들의 피해를 거시적으로 접근했다면 《...도시사회상 연구》는 실제 이 땅의 도시에서 살아갔던 조선 시민들의 생활상을 낱알의 기록과 통계자료를 통해 드러내 보이고 있다.

## 조선시민들의 생활상 드러내

1910-1920년대의 생활상을 직업별로 들여다보면, 공무원의 경우 조선인 채용인원

수도 적는데다 업무도 경미한 심부름 정도의 성격이었다. 게다가 특별법령으로 한인의 봉급은 일본인의 50~70% 수준에서 지급됐다. 고인(雇人)급료액까지 차별화돼 있어서 일본인 수위의 초임급료액이 70전 이내인데 비해 조선인은 15전 이내, 일본인 간호부 조산부 보모가 월 80전 이내인데 비해 조선인은 40전 이내로 규정돼 있다. 그 밖에 숙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까지 조선인 관공리는 일본인의 50~60%선에서 지급받았다.

이같은 차별화로 도시대중은 절대빈곤에

**“우리나라 모든 학문이 거의  
그렇지만 특히 일제시대사 연구는  
아직도 황무지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자료들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기여서  
우직하게나마 이 일에 매달려  
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도시로 몰려든 농민들은 지게꾼 날품팔이 행랑어멈 등 최하층 노동으로 연명했다. 1933년 조선총독부의 <세국민생활실태조사>를 보면 1가구당 평균 6원58전의 수입으로 가족 1인당 1원26전의 식사비와 19전의 주거비, 14전의 의복비, 수돗물값과 교육비 1원92전의 지출을 감당해야 했다. 12가구마다 1개의 변소를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토막민’의 일제강제징용**

손교수는 일제시대 도시주택 문제에도 주제를 넓혀간다. 연구의 초점은 하층민들의 주택문제, 즉 행랑살이와 토굴, 토막민과 불량주택 거주자의 주거문제로 모아진다. 여기서 손교수는 중대한 사실을 한가지 발견해낸다. 도시로 모여든 농민들은 연구지가 없을 경우 산위의 흙을 파서 만든 ‘토막’ ‘토굴’ ‘움집’ 형태로 모여살게 된다. 이 토막민의 인구가 늘어나자 일본 당국은 골치

를 앓았는데, 1942년에는 7426호 3만7천명에 이를 정도였다. 그런데 이렇게 많던 토막민들이 해방 이후 통계에서 갑자기 증발해버린다. 어떻게 그 많던 토막민들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을까. 손교수는 42년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에서 그 원인을 발견해낸다.

“용산 성동 동대문 각 경찰서 관내에 있는 570여명의 토막민을 제1,2차 계획으로 각각 북해도의 철도 토목공사장으로 알선, 파송키로 결정”했다는 그 기사는 1차로 233명, 2차로 170여명을 파송하여 대경성에서 이들 토막민들의 자취를 없애게 할 계획임도 밝히고 있다. 토막민들을 분명한 노동동원, 강제징용으로 몰아갔음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사실 이같은 내용도 조선총독부 관련 자료를 그야말로 이잡담 살살이 훑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못할 사항이었다. 연구실 삼아 쓰고 있는 연회동 시사편찬위원회의 방 하나 가득 손교수의 연구자료들이 들어차 있다. 우리나라 도시관련 잡지만 해도 1500여권이 넘게 꽂혀 있고, 국내는 물론 일본 각지와 도서관을 다니며 뒤진 끝에 얻은 귀한 자료들이 연구실 네 벽면을 빼곡이 채우고 있다. 손교수의 자료 가운데 당시 공보처 통계국에서 조사한 6.25 때 <종합피해 조사표> 사본은 지금은 관계부처에서도 보관되지 않은 대한민국 유일할 자료이기도 하다.

단 하나의 통계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도서관 서고를 살살이 훑어 찾아내고야

마는 ‘우직함과 집념’의 탐구일생을 이어온 손교수가 처음 도시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70년도부터.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채 법률공부에 매달려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시에서 기획관리국장을 맡으면서 도시의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당시 <풍수지리와 도시계획과의 관계>라는 논문까지 제출하면서 우리나라 도시의 역사에 폭 빠지게 된다. “세속적인 출세보다는 동시대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 역사를 쓰는 사람”이 되겠다는 손교수의 만학 열정은 서울시립대에 학문의 등지를 틀고 퇴임한 후 지금까지 오로지 한길로 뛰어오게 만들었다. 83년에는 우리나라에 ‘도시학’을 도입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문화상을 받기도 했다.

**우직함과 집념의 일생**

“이제 일제강점기까지 우리나라 도시역사에 관한 연구를 마무리했으니 어느 정도 학자로서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평소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를 생활신조로 삼았는데 어느새 ‘죽기 전에’라는 말로 바뀌더군요. 이제 정말, 내가 아니면 쓸모 없을지도 모를 이 자료들을 모두 활용한 마지막 저술을 끝내는 데 매진할 생각입니다.”

7년전 암수술을 받아 건강을 장담할 수 없지만, 두권의 저서가 나오기가 무섭게 또 다시 저술에 매달리는 손교수의 열정은 젊은 학자의 혈기가 무색할 정도다. 지금 집필

중인 저서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서울의 변화’ 특히 도시계획에 얽힌 ‘비화’에 중점을 둔 ‘서울 이야기’를 쓸 예정이다.

“서울의 주요건물 하나하나마다 모두 뒷 얘기가 있습니다. 주로 박정권과 관련된 내용이지요. 이를테면 잠실의 개발은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려다 제대로 된 운동시설이 없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후 세계적 규모의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겁니다. 그냥 두면 무심하게 잊혀질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엮어볼 작정입니다.”

역마차에서 지하철로 바뀐 서울의 교통문제에서 무허가 건물을 둘러싼 이야기 등 서민들의 생활이 담긴 이야기들도 모아 정리하겠단다. “역사의 언덕으로 사라질 이야기들을 모두 정리해서 이 무거운 머리를 비우겠다”는 결심은 앞으로 3년~5년 이내에 결실을 맺을 듯하다.

딱딱하기만한 연구서이지만 막상 책을 펼쳐보면 이야기를 읽듯 술술 읽히는 것도 손교수 저술의 특징이다. 두 아들 모두 건축을 전공한 공학박사인데, 만아들은 <도시주거형성의 역사> <북경의 주택>을 지은 손세관 교수(중앙대)다. 손교수의 학문과 그리 거리가 멀지는 않은 듯한데, 자식들의 학문이 ‘공학’이라 분야가 전혀 다르다며 대를 잇는 학문에는 기대를 않는다. 손교수는 “역사 사회과학이 최고의 학문”이라며 “언젠가 도시의 역사가 역사학의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자신의 학문에 대한 넘치는 애정을 확인한다.

— 김지원 기자

알미운 아내는 한국인 한국인

영양학 일본 남자가 쓰는 밥상 위의 한일 전쟁



**동아출판사**  
TEL: 861-4818/853-5608

**현대판 한·일 전쟁에서는 한국이 이긴다?**

한국 여자와 결혼한 일본 남자 히라이 히사시 씨. TV특파원으로 서울에 머무는 동안 사귀게 된, 툭툭 튀는 한국 여자와, 한 쌍을 이루기까지 치러 낸 수많은 사연들을 엮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달라야만 하는 걸까요? 아내는 성격 칼칼하고 때로는 경우도 없이 따지기 좋아하는 한국사람, 남편은 천성이 확실한 게 없는 모호한 일본 사람인 탓입니다. 언어 한 토막, 갈치 한 토막이 따로 구워 올려지는 이들의 밥상. 생선 취향에도 민족성이 반영되는 것일까요? 상식이 다른 두나라, 선명하게 대립되는 두개의 문화를 끌어 안고 벌이는 해프닝과 그 대립을 하나의 ‘재미’로 받아들이기까지 3년 여의 시간을 실감나게 담은 한솔밥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얻은 깨달음으로 “이제는 서로 다른 것이 즐겁다”는 두 사람. 민족이니 남녀니 하는 문제보다 더 큰 세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알미운 한국인!’을 주장하고 나선 애처가 일본 남편이 농도 짙게 한국 여자를 꼬집습니다. 현대판 한일 전쟁에서는 한국이 이길까요? 히라이 히사시 지음/정가: 6,000원

